| 불자 세상보기 |

패거리 · 학벌 문화 배우려 입학하나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초봄, 3월은 학교 입학의 계절
신입생에겐 잔인한 3월로 변모

대학 OT선 '군기잡기' 판 치고
유치원 입학은 로또 당첨 같아
초등생들은 선행학습에 멍들어

학벌주의로 공교육 목적이 상실
세상 변하는데 우린 '학벌' 갇혀
신나고 재미난 학교, 못 만드나

3월이다. 해빙의 계절이고 설렘의 달이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의 달이다. 내가 사는 의왕시 백운고등학교 담벼락에 "헌 남학생 교복 구합니다. 175cm"라는 큰 쪽지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보니 3월은 입학의 계절이기도 하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새로운 공부를 하고자 하니 이 얼마나 찬란한 달인가? 그런데 누가 3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축복받아야 할 입학의 계절에 황당하고 우울한 소식이 지면을 장식한다. 대학 신입생에서부터 유치원 입학에 이르기까지. 이를 종합해 보면 마치 한국사회가 지닌 문제점의 집하장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일부 대학의 신입생 강압적 군기 잡기(이를 똥군기로 표현한다)와 성희롱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군대 문화에서 이식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의견도 있다. 1960년대 후반에 입대하여 서부전선 GOP사단에서 3년간 사병생활을 한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시 신병이 오면 장기 자랑을 하게 하고, 여동생이 있느냐는 장난기 어린 질문으로 새 식구를 받아 들였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요즘 세대에서 폭력적 집단주의 의례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사회에서 만연한 권위적 서열 문화, 약자에 대한 갑질 문화, 조폭적 공동체 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황당한 신입생 군기 잡기와 성희롱 사건은 바로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조 신임관료에 대한 신고식과 유생의 성균관 입학 신고식이 잔혹할 정도로 유별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의 붕당 정치의 폐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혹독한 신고식이 같은 패거리를 만드는 첫 관문의 의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대학은 그렇다 치고 유치원은 어떤가? 유치원도 명문이 있어 그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손녀의 유치원 입학 추첨에 직접 참여하여 당첨되어 길길이 기뻐하는 친구의 모습에 나는 어리둥절했는데 자초지종을 들으니 이해가 갔다. 4번째 시도만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유치원 교복 값과 교재비 등 입학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 친구는 당분간 궁핍하게 지낼게 뻔하다. 유치원부터 이러니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할까?

초등학교 입학도 만만치 않다. 우리 시절에는 모두가 얼떨결에 초등학교 교정에 '나란히 나란히' 하면서 섰는데, 요즘에는 입학하기도 전에 선행학습을 위해 여러 학원을 배회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어떤 선행학습이 필요한지 궁금할 뿐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러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되새김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가는 꼴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에 비해 행복도가 매우 낮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제일 큰 원인은 '학벌주의'의 병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학벌주의로 인해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사라졌고, 교육의 주체는 도구화되었고,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길을 잃었다. 이제 입학은 학벌이라는 트랙을 달리는 출발점이 되고 말았다.

이 못된 학벌주의는 한국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생성된 경쟁적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한국인은 그만큼 험하게 사납게 살아왔다. 제4차 산업혁명이니 하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학벌주의의 액자에 갇혀있다.

불가에서 중생(衆生)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중생은 함께 사는 존재라는 뜻이다. 타자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타자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중생이다. 신나고 재미나는 학교에서 어린 중생이 한껏 춤을 추어야 하는데. 입학의 계절에 사나운 경쟁의 트랙에 들어선 어린 중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리다. 이를 어쩌랴.

社說

불교, 韓中 신뢰 회복 키워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 · 중 양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수입 및 소비 금지를 골자로 한 금한령과 한국관광 금지 등 양국 교류의 맥이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단체들이 한중 불교교류를 통해 양국 교류의 맥을 잇고 있다. 그 단체들은 108산사순례기도회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중국 불교계에서 영향력이 큰 저장성 설두사와 결연을 맺고, 5월 중 성지순례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3월 17일 중화전국청년연합회와 교류협약을 맺는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금한령 속에서도 교류를 성사시킨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신뢰'였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꾸준히 친선교류 활동을 해 온 파라미타 상인 스님, 그리고 중국 스님의 동국대 초청유학 등이 작용했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 삼국시대 때부터 불교전래를 시작으로 교류를 이어왔다. 특히 양국 스님들의 교류는 문화교류이자 지식교류, 정치교류이기도 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구법승들은 민간외교관 역할도 했다. 짧게 보아도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전부터 양국 불교계는 발빠르게 교류를 맺어온 역사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호혜적 관계로 보고 있다. 북핵으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은 장기적으로는 동반자로 함께 가야 할 과제란 것이다. 이런 과제 앞에 이제 불교계가 서있다. 불교계는 다시 한반 불교교류로 양국 관계의 신뢰를 구축하는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갈등의 시대, 화쟁의 묘를 살리자

부처님 당시의 일이다. 카필라국과 콜리국은 본래 형제우애를 쌓은 사이였지만 큰 가뭄이 들자 다툼이 일기 시작했다. 두 나라 사이 강의 물을 더 많이 끌어오려고 한 것이다. 이를 안 부처님은 중재에 나섰다.

두 나라 왕을 불러놓고 부처님은 "물의 값어치는 얼마나 나가는 것인가?"라고 묻자 왕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부처님이 "병사들의 목숨과 피의 값은 얼마나 되나?"고 다시 묻자 왕들은 "값으로 따질 수 없다"고 답했다. 부처님은 물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해친다는 것이 온당하냐며 왕들에게 다시 질문했고, 이들의 전쟁을 중지시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쪼개진 한국 사회 진영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보수와 진보, 양측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한 불교계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상반된 견해로 인한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런 갈등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양측의 논리는 같다.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와 발전, 그리고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격렬하게 상대방을 이기고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미래와 발전이 더욱 중요한가? 우리나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다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같다.

이제 남은 것은 부처님과 같이 양측을 모아 놓고 소통하고 그 가치에 대해 알려주는 중재자의 역할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다양한 사회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다.

탄핵으로 인해 민심이 분열된 지금이 바로 이러한 중재자 역할이 활발히 일어나야 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특별기고

불교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을…

천석현 한국에너지공단 경기본부장

봄날이 온다. 우리 생애에 다시 한번 봄이 찾아온다. 잠시 왔다 다시 가야할 봄이기에 더욱 아름답고 기다려진다.

하지만 요즘 봄은 너무 짧아지고 있다. 사계의 구분이 세월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조금 조금씩 봄과 가을을 도둑맞고 있다고나 할까.

어느 기상전문가에 의하면 앞으로 50년 후 한반도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 한다. 한반도는 아열대 기후가 되면서 봄, 가을은 더 짧아진다. 또한 봄 가뭄도 심각해진다.

한편 지구 다른 한편에선 홍수로 난리다. 해마다 극심해지는 폭염과 추위, 그리고 점점 빈번하고 거대해지는 태풍. 한쪽은 가뭄으로 신음하고 한쪽은 폭우로 몸살을 앓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몸과 마음이 편치 않다. 원인은 편리함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자비하게 파헤쳐 지고 있는 화석에너지. 이에 따른 온실가스의 급속한 증가로 나타나는 지구온난화 현상. 지구온난화와 우리의 일상은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우리가 자행한 무분별한 에너지 개발과 사용이 이같은 업보(業報)를 낳은 것이다. 붓다는 연기법을 통해 나와 세상 일체 만물은 연결돼 있음을 설했다. 이를 새겨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지구 곳곳이 앓고 있는 몸살의 책임은 나로부터 시작돼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이같이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좇다 직면하게 된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욕망'을 다스리는 길 뿐이다. 문명에 찌들어 키워진 욕망을 거두어야 한다. 소박한 삶을 강조하는 붓다의 가르침이야 말로 우리 앞의 재앙을 최소화하는 최상의 해결책일 것이다.

이에 '에너지절약을 통한 친환경세상 구현'을 표방하는 불교계의 작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에너지절약 ACE운동'이다.

3년 전부터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시작된 이 운동은 에너지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사찰에 대한 에너지 진단(Audit)을 통해 에너지 낭비 요소를 분석,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진단에 따라 사찰도 이제 고효율 LED램프 교체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인다. 또한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며 환경보전에 앞장서 나간다.

한편으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간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나와 가정, 사찰과 우리 사회가 이제는 친환경적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에너지 문제는 이미 우리 불자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제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삶과 우리가 꿈꾸어야 할 삶,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 더 나아가 우리 불교계는 이제 지속가능 친환경적 삶을 위한 역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때다.

혹독한 겨울을 헤치고 다가오는 따스하고 자비로운 봄볕이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계속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에너지 이용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절제 · 절약 실천운동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